

# 봄 내려온다~ 주말나들이 전통문화관으로

24일 '방성춘과 함께하는 소리동행'  
25일 '어서오소 전통의 꽃놀이더라'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전통문화관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보는 것은 어떨까.

전통문화관이 토요일상설공연, 융·복합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먼저,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방성춘과 함께하는 소리동행'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방성춘과 제자들이 꾸미는 무대다.

공연은 '적벽가' 중 '군사설움타령 대목'과 '춘향가' 중 '사랑가대목'으로 시작하며, 이어 '수궁가' 중 '봄 내려오는 대목', 단가 '사철가' 등과 '흥보가' 중 '둔타령'부터 '박 타는 대목'까지를 들려준다.

무대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송혜원과 전수자 오현기가 오르며 고수는 정인성이 맡는다.

융·복합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2021 무등풍류던 삼월삼진 이야기 '어서오소 전통의 꽃놀이더라'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삼진날 노란빛 물결' 나비 조형물 야외 전시, 삼월삼진 이야기, '화전' 모양 수세미 나눔, '소포결구농악 한마당'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전통문화관이 24~25일 토요일상설공연과, 융·복합 전통문화예술 행사 등을 선보인다.

'삼진날 노란빛 물결' 나비 조형물 야외 전시는 전통문화관 숲속대문 주변과 도로 화단 등에서 진행되며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입석당에서 '삼월삼진 이야기'가 진행된다. 최영자 남도의례음식장(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이 강사로 나서 '선조들이 삼월삼진에 나눠 먹던 전통음식 이야기'를 전하며, 김병철 소포리 전통민속전수관장은 '삼월삼진 세시풍속이야기'를 들려준다.

진도소포결구농악 보존회는 오후 3시 너덜마당에서 당산굿을 시작으로 들당산굿(노래굿), 샘굿, 매굿(마당밧이), 바당굿(판굿), 날당산굿 등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화전 수세미' 나눔 행사는 선조들의 옛 세시풍속 '화전놀이'를 떠올리며 '화전 수세미'를 제작해 시민들과 나누는 시간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통문화관 유튜브와 페이스 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비엔날레 작품을 K-POP 댄스로 재해석 하는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광주비엔날레 전시 모습.

## 비엔날레 작품, K-POP 댄스로 변신하다

광주관광재단, 24일 용봉초록습지공원·5월1일 ACC 아시아문화광장서 공연

올해를 '비엔날레 여행의 해'로 선포한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은 제 13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기념해 비엔날레 작품을 K-POP 댄스로 재해석 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시 K-POP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비엔날레 개최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공연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비엔날레 옆 용봉초록습지공원 공연장에서 열리며 2회차 공연은 5월 1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차세대 K-POP 스타를 꿈꾸는 광주 댄서들이 직접 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전시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몸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꾸며질 예정이며, 작품에 대한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람객들을 전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재단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에 친근한 K-POP 댄스를 접목해 비엔날레에 대한 문턱을 낮춰 예술여행도시 광주를 홍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K-POP 관광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062-611-363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도록 발간

전문가 25인, 예술감독소개 등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의 도록(사진)이 발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된 전시 기간 동안 방문이 어려운 국내외 관람객들과 광주비엔날레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제작된 도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콘텐츠와 전시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묶었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모두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 발간을 목표로 진행돼 왔으며, 별도의 편집팀을 꾸려 전시와는 또 다른 독립적인 구성으로 도록을 제작했다. 또한 참여작가, 사상가, 과학자, 언론인 등 25인의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필적으로 참여했다.

도록은 ▲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컨셉에 대한 예술감독소개 ▲ 2020년 5월 런칭한 온라



인 저널 '떠오르는 마음' 에세이 ▲ 전시공간 안내 및 작품과 작가 소개 ▲ 온라인 커미션 프로젝트, 포럼, 오프닝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라이브 오감 프로그램 소개 ▲ 출판작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록은 네덜란드 램프 판 블라델 스튜디오가 전체 디자인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으며, 천양피 엔비의 지원을 받아 기존 전통한지의 질감과 문양을 그대로 살린 국내 한지를 표지와 내지 일부에 사용해 눈길을 끈다. 가격 3만 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손그림과 스크린아트의 상상속으로

국립광주박물관, 24~26일 '두들팝' 공연 유튜브 공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공연 '두들팝(Doodle POP·사진)'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두들팝'은 손그림과 스크린아트로 채워지는 융복합 미디어 드로잉쇼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다여행을 떠나는 두 주인공 '우기'와 '부기', 그리고 작은 거북이의 모험극을 통해 상상력과 보드마카로 유쾌하게 그려냈다. 두 친구가 만드는 낙서들에 악사들의 살아있는 사

운드와 통통 튀는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온 가족이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인스타그램 인증샷 X 해시태그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인스타그램에 공연 관람 인증샷과 필수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70-78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문등지 '내 마음 인문학으로 보듬기' 강좌

26일 최혜영 교수 첫 강의...한희원·박성수·이향준 등 참여

인문등지가 주관하는 인문학 강좌가 오는 26일부터 9월27일까지 모두 6차례 열린다.

'내 마음 인문학으로 보듬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질병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인문학 강의로 미술관, 카페, 복합 문화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의가 펼쳐진다.

행사를 주관하는 인문등지는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진행하는 광주의 인문학 공부센터 '카페필로소피아' 회원들의 동아리로 광주시 동구 인문도시 활성화 인문등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6일 오후 7시 복합문화공간 김넛과에서 열리는 첫번째 강의에서는 최혜영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신화 속에 흐르는 휴머니즘'을 주제로 강의하며 5월31일에는 '나는 그린다, 고로 존재한다'를 주제로 한희원 작가가 시민들을 만난다. 강의 장소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희원미술관으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어 6월 28일에는 이향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서(楚) - 인간의 징검다리'를 주제로 김넛과에서 강



최혜영 한희원

의하며 한순미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7월 26일 '추방된 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를 주제로 무등산 자락 Cafe The Box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그밖에 박성수 전남대 명예교수의 '경영학자가 본 인생 경영' (8월30일·카페 필로소피아 연구실), 조상렬 대동문화재단 대표의 '역사속의 전라도 천년 문화' (9월27일·김넛과)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 문의 인문등지 010-3221-67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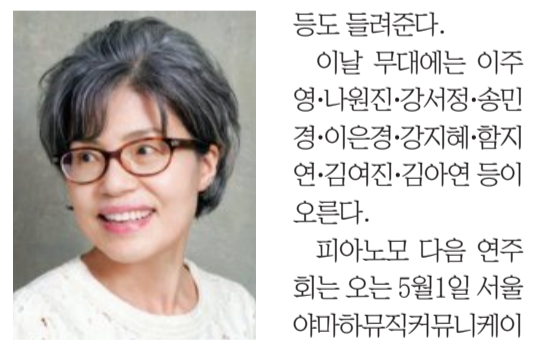
## '피아노모' 선율로 슈베르트 곡을 듣다

24일 광주 금호아트홀

'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의 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피아노모 서울일곱번째 연주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전문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연주단체인 피아노모는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매년 서울과 광주 등에서 테마가 있는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송민경의 해설로 슈베르트 곡을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6개의 악중의 순환', '즉흥곡', '피아노 소나타 D.784·D.845·D.958' 등이며 슈베르트의 가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미왕', '송이', '물 위의 노래', '물레감는 그레첸', '방랑자'



이주영

등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는 이주영·나원진·강서정·송민경·이은경·강지혜·함지연·김여진·김아연 등이 오른다.

피아노모 다음 연주회는 오는 5월1일 서울 아마하뮤직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열리며 6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1관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전석 2만원. 문의 010-9961-17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 국제보청기